

간편식 편의성 넘어 '패스트 프리미엄' 시대

4조원대 간편식 시장 선점 위해
궁중갈비찜·아보카도 샌드위치 등
유통업계 고급 간편식 출시 나서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내건 '에그드롭'은 최근 여수·광주 전남대점에 이어 충청로에 지점을 냈다. 이곳은 기존 재료와 다른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아보카도 등을 넣은 샌드위치를 3000~4000원대에 내놓고 있다. 간편식이라도 '든든히' 먹고 싶은 인근 직장인과 대학생 등이 몰리며 점심시간에는 긴 줄을 서곤 한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소문이 난 이 샌드위치 가게는 광주 상무지구와 순천에도 지점을 낼 예정이다.

간편식이 고급스러워지고 있다. 가격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른바 '나심바' 소비 성향이 간편식에 반영된 것이다. 컵밥, 죽, 라면 등 간편식에 이색 재료를 넣어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으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국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0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까지 성장했고 업계는 올해 시장 규모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지난해 7~8월 202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벌인 결과 가구당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7만8875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1인당 월평균 간편식 지출액은 1인 가구



(7만1517원)가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가구(5만8596원), 4인 가구(4만9267원), 3인 가구(4만7947원), 2인 가구(4만4159원) 순이었다.

간편식 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할 때 편의성이 3.97점, 다양성 3.85점, 맛 3.75점 등으로 대체로 중간 이상이었다.

간편식의 급성장에 외식업계도 관련 상품을 내놓으며 발 맞추는 모양새다.

'본죽&비빔밥 카페'는 세계 3대 진미인 송로버섯 기름을 넣은 '트리플 전복죽은 1만6000원(특 2만3000원)대로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만 한 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 서민 음식으로 꼽히는 라면은 바닷가재나 장뇌삼 등 최상급 식재료 넣어 차별화했다. 가정간편식의 원조격인 '3분 카레'는 레드와인으로 숙성한 쇠고기와 로즈마리, 타임 등 5가지 허브를

넣어 '스페셜티 카레'로 변신을 꾀했다. 잔칫날 대표 음식인 갈비찜에 착안한 '궁중 갈비찜밥'도 나와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는 구운 버섯이나 계란 프라이를 넣은 수제버거를 9000원에 내놓기도 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3월 20~60대 성인 49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2.7%)은 "가정간편식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간편식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대부분(68%)은 "식사준비가 쉽고 빨라서 구입한다"고 답했다. 직접 재료를 사서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정간편식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37.4%에 달했다. 가정간편식 형태로 출시되었으면 하는 메뉴로는 전통 한식이 39%로 가장 높았고 간식·디저트(30.8%), 야식(29.7%), 퓨전음식(28.9%)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벌써 여름” 유통가 여름 준비 분주



이른 더위에 여름 상품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신세계 6층 'K2' 매장 직원이 통기성이 우수하며 열기를 배출하는 냉감 소재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과일·선글라스 등 할인 행사 바캉스 용품 전년비 매출 증가

광주에서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지난 15일 발효되면서 유통매장도 서둘러 여름 단장을 마쳤다.

◇여름음식 인가·수박·삼계탕 할인전 다양한 여름 대표 과일도 대열 정돈을 마무리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3% 증가했다. 대표적 여름 과일로 꼽히는 토마토(6.4%), 복숭아(253.7%), 포도(105.3%), 참외(3.5%) 등도 대체적으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망고스틴·리치(356.7% ↑), 두리안·용과(19.7% ↑) 등 동남아시아 지역 과일도 지난해보다 많이 팔렸다. 여름철 음료 재료로 인기인 레몬과 라임의 매출도 지난해보다 13.1% 늘어났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오는 23~29일 '여름 대표 과일 행사'를 연다.

1~2인용인 애플수박(1.5kg)을 6900원에, '속노랑 미니 흑수박'(2.5kg)을 7900원, '미니 흑수박'(3kg)을 8900원에 판매한다.

또 대추 방울 토마토(1.5kg) 1팩은 6900원, 'GAP 성주참외'(1.5kg) 1봉지 7900원, '미국 캘리포니아산 체리'(650g) 1팩 1만2900원, '스위티오·감속왕 바나나'(1.2kg) 1봉지를 3900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여름 대표 음식인 양념 된물장어(대·1만3800원), 피코크 냉면 가족세트(4인용·7480원), 피코크 진한삼계탕(900g·8980원) 등을 할인 판매한다. 일부 품목은 행사카드(이마트e-

삼성카드 등)로 구매하면 20% 할인 혜택을 주고 KB국민카드 결제시 추가 10%할인한다.

◇5월 휴가 떠나자·바캉스 용품 붐이 이른 더위에 여름 휴가 준비도 빨라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0~20일 바캉스 관련 상품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8% 증가했다. 여행용 캐리어 매출 증가율은 43.4%로 두드러졌고 디지털카메라(32.6%), 선글라스(23.2%), 래쉬가드(10.1%) 등이 뒤를 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바캉스 아이템을 매장에 전면 배치하고 관련 할인 행사를 앞당겼다.

'유니클로'는 오는 24~30일 '여름 감사제'를 열고 '무인양품'은 24일부터 회원에게 바캉스 의상, 신발 등을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무지 워크'를 진행한다. '더 바디샵'은 선글라스 등 여름 관련 제품을 30% 할인 판매(24~25일)하고 선글라스 기획전(24~28일)도 마련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3~29일 '블랙야크' 아쿠아 샌들을 4만9000원, 슬리퍼를 2만원 균일가로 선보인다. 브라질 샌들 브랜드 '하바이아나스' 매장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블루마운틴' 슬리퍼를 2만3000원에 판매한다.

지난 10일부터 여름 기획전에 돌입한 ㈜광주신세계 역시 상품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20일 매출을 비교해 보면 아웃도어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고 화장품(20%), 선글라스(15%), 스포츠 의류(36%) 등을 찾은 소비자도 크게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유아 '고데기' 화상 사고 많다



소비자원 '주의사항 계시해야'

이른바 '고데기'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 머리인두로 인한 영유아 화상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고데기 관련 사고는 매년 130건 이상 발생해 총 755건에 달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의 사고 중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268건으로 절반(50.4%)이 넘었다. 반응 속도가 느린 0~1세 영아의 사고 발생 건수는 174건

(64.9%)에 달했다.

고데기 사고는 열에 의한 화상(74.4%·562건)과 화재·폭발(15.2%·115건)이 주를 이뤘고 모발 손상(4.0%·30건)도 뒤를 이었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 74.6%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은 경우였다.

소비자원 측은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영유아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위해를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치료 기간이 확인된 68건 중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주 이상~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긴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가 54.8%였다. 화상 정도가 확인된 300건 가운데는 2도 화상이 88.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할 결과 215°C까지 상승했고 스위치를 끈 이후에도 5분 가량 100°C 이상이 유지된다"며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 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온라인 쇼핑물에 사용자 주의사항을 계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